

나무결에 숨쉬는 불보살 찾아나다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49호 목조각장 지정된 한봉석씨

“조각은 실체를 보기 위해, 주변을 깎아 내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내 안의 부처를 찾기 위해 잠선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비우고 수행 하듯이 말이죠.”

최근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49호로 지정된 한봉석 목조각장(50·사진)은 들 뜬 듯 하면서도 부끄러운 말투로 이렇게 말했다. 경기도 남양주시 외곽의 한 조용한 마을에 작업장을 둔 한봉석 작가는 30년 넘게 목조각의 한 길만을 쉬 없이 달려왔다.

한 작가는 2003년도 화재로 소실된 원주 구룡사를 복구하는 작업을 맡았었다. 한봉석 작가는 “구룡사 복원 때 제대로 된 전통양식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오늘날 도지정 무형문화재로 자신을 키운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 작가는 현재 맥이 끊겨가는 조선시대 불상을 드물게 재현하고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이다.

“저는 기교를 잘 부릴 줄 모릅니다. 기교를 많이 보이면 화려한 맛은 있어도 부처님을 제대로 느낄 수는 없죠. 그래서 저는 작품을 단순하면서도 투박한 느낌이 들게 합니다.”

한봉석 작가는 “조선시대 후기 불상들이 대부분 단순·투박한 느낌을 준다”며 “17세기에 불모로 활동했던 회장 스님의 작품을 통해 이러한 느낌을 재현하려고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후기는 억불정책으로 불상이 거의 조성되지 않던 시기였다. 불교가 활성화 됐던 고려시대의 화려한 불상과는 달리 조선시대 불상은 어

깨가 굵고, 배가 볼록한 채 단조로운 느낌을 준다.

“사람들이 대부분 오해하는 것이 조선시대 불교가 억압을 받던 시기라, 부처님 어깨가 굵고 소극적인 모습을 띄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굵은 듯한 어깨 형상은 오히려 부처님을 편안하게 보이게 합니다. 볼록 나온 배 역시 참선을 오래한 부처님의 편안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서민적인 느낌으로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부처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목조각장은 1970~1980년대 부흥기였으나, 지금은 그 맥을 잇는 사람이 드물다. 조각하는 사람들 대부분 연령이 40대 이상이다.

“예술을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외로운 길입니다. 자신만의 인내와 끈기가 부족하면 더더욱 힘이 듭니다. 항상 하심하는 마음가짐이 중요 합니다. 더군다나 목조각은 나무를 깎고 다듬는 작업 자체가 너무 힘이 듭니다. 건강한 남자도 쉽게 하기 힘든 것이 바로 목조각 작업입니다. 전수방법이 체계적이지 않은 것도 후학 양성을 어렵게 하는데 한 몫합니다.”

목조각은 스승에 의해 구법 전수와 답습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으로 교육돼 왔다. 그러다 보니 정작 기술은 전수받았어도 조각기법에 대한 정확한 명칭이나, 개념이 모호한 경우가 많았다.

한봉석 작가는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수학하면서 체계적인 후학 양성 방법을 고민 중이다.

“부처님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목불장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계속 불상을 조각해 왔지만 제가 부처님의 의미를 제대로 알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학문과 기술이 제대로 접목된다면 더욱 좋은 작품이 나올 것입니다. 체계적인 후학양성을 도모할 수도 있겠고요.”

한 작가는 “조각을 제대로 안 것은 40대부터 이고, 인생을 제대로 안 것은 50대부터”라며 “30년 넘게 조각을 하고 나서야 부처님의 마음이 진심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법장 스님이 심인(心印)이라는 법명을 직접 지어주셨습니다. 심인이라는 뜻은 문자와 형상에 치우치지 말고 보살의 마음으로 작업에 열중하며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법명에 깊은 뜻을 담아 주신 스님의 가르침 덕분에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 스님 덕분에 하심 하는 방법을 알게 됐습니다.”

한봉석 작가의 작업장 한 칸에는 불상과 함께 법장 스님의 사진이 모셔져 있다. 한 작가는 매일 작업 시작 전 삼배를 올린다. 마음을 비우고 작품에 임해야 진정한 ‘부처’를 조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작가는 “자라나는 후배들이 좀 더 체계적인 환경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목조각에 대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se084@buddhanews.com



대리석에 피어난 관조의 흔적

한기능 '자연과 빛의 조각전' 부산 롯데호텔 1층서

불교계 대표 여류조각가인 한기능(58) 작가가 '자연과 빛의 조각전'을 주제로 전시회를 연다.

15년 동안 이탈리아에서 작품 활동을 펼쳐왔던 한 작가는 현재 부산 달맞이 언덕에 작업장을 마련해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한기능 작가가 그동안 부산에서 새롭게 작업한 작품과 기존 작품들을 한자리에 모아 선보이는 것이다. 전시회에는 기존 작품 20여 점과 신 작품 10여 점 등 30여 점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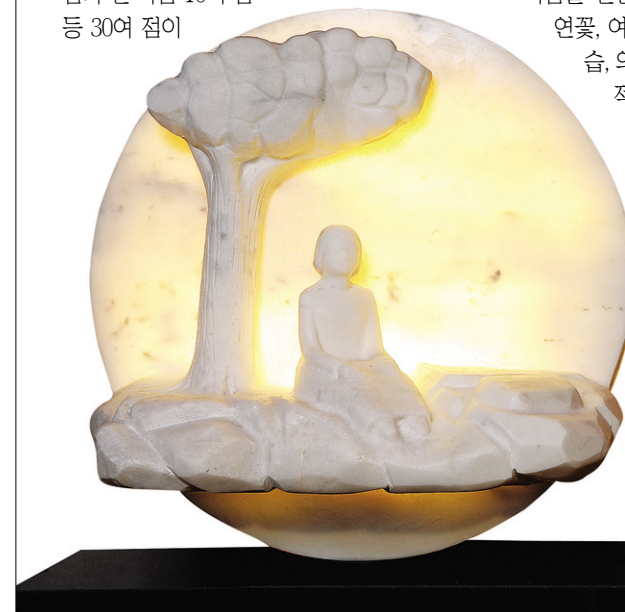
소개된다. 신심 깊기로 소문난 한기능 작가의 작품은 자연과의 교감아래 길어 올린 그의 명상과 침묵의 결실이다. 한 작가는 차가운 대리석에 또 다른 생명체를 불어 넣어 작품을 완성했다. 자신의 수행을 작품들 통해 이끈 한기능 작가의 작품들은 서로 유기적 관계로 얽혀 있다.

작품은 대부분 명상, 침묵, 관조나 수행의 자세를 취하고 있어 마치 은화한 부처님을 보듯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또한 그의 작품에서는 연꽃, 여자, 대나무, 은행나무, 기도하는 모습, 의자, 손, 비파나무 잎사귀 등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기능 작가는 “그간 많은 분들이 꾸준히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 이번 전시회는 그런 분들에게 보답하고자 마련한 자리”라며 “작품을 통해 따뜻한 봄의 기운을 느껴볼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기능 작가의 이번 전시회는 3월 31일까지 부산 롯데호텔 1층에서 전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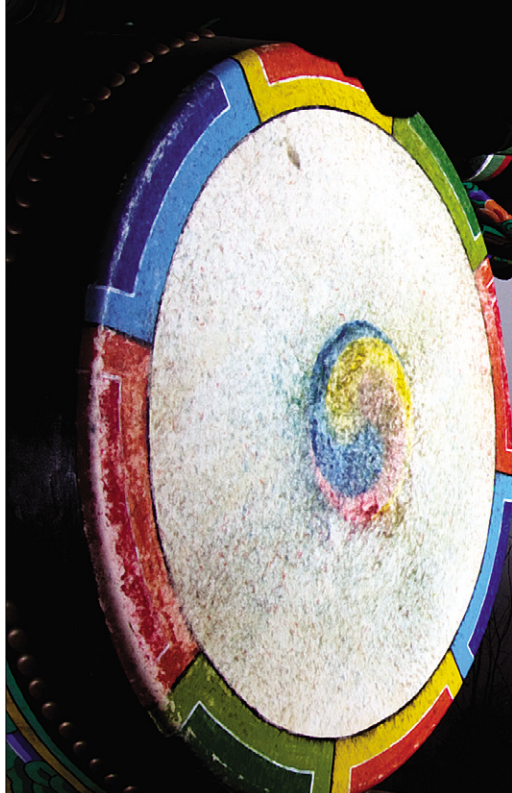
이은정 기자



한기능 작가의 '자연 속에서'

불법이 큰 울림 되기를...

부천시청·광갤러리·석왕사에서 순회 전시



불교를 사랑하고 사진을 좋아하는 이들이 만나 '불교 알리기'에 나섰다. 사진동우회인 심상(心象)은 아름다운 불교의 문화를 자신들의 카메라렌즈에 담아, 불교 알리기에 한창이다. 사진포교예술 단체인 심상은 1989년 처음 동호회를 결성해 20년 가까이 불교포교와 불교문화의 예술성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매년 1회씩 전시회를 열어온 심상은, 올해 21번째 전시를 개최한다. 아마추어와 준 프로급 사진가들 14명이 모여 다양한 불교의 모습들을 선보였던 이들은, 이번 사진전에서 불교의 전통의식 사물인 법종, 법고, 운판, 목어 등을 주제로 작품을 선보인다.

심상에서 홍보를 담당하는 고외숙씨는 “불교문화는 한국문화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며 “동호회원들 모두 불교문화에 심취한 불자

들로서, 이들이 카메라로 담아낸 불교의 아름다움을 많은 이들과 함께 즐기고 싶은 것이 전시를 여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심상 회원들은 지난해 청계천 인근의 한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열 당시 사람들이 불교에 대해 많은 호감을 나타내 자부심을 느꼈다.

김종욱 회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바빠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 부처님의 가르침이 큰 울림으로 전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자신들의 작은 재능으로 중생들에게 큰 기쁨을 선사하는 심상의 전시는 4~5월 계속된다. 4월 2~7일 부천시청 아트센터, 5월 12~18일 광화문 광 갤러리, 5월 20~21일 부천 석왕사 전시실에서 그들의 렌즈에 담은 40여 점의 작품을 만나 볼 수 있다.

이은정 기자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중생교육을 위한 맞춤 교육

카이로프락틱

지도자 모집

교과목 • 카이로프락틱 - 경추, 흉추, 요추, 골반, 선추 이론 및 실기
• 골격학, 근육학, 운동처방학

기간 • 2급과정 (2개월)
미국 팔머대학 교재직강, 2년 전문대 교육 과정을 집약 완성

장소 • 지하철 4호선 대야미역 하차후 왼쪽 출구, 신영프라자 301호

입학일시 • 2010년 3월 15일 오후 1시 (공개강좌)

쉽함 라마불교체육지도자 교육연수원
경기도 군포시 대야미동 34-5호 신영프라자 301호
본원 교과과 Tel : 031-502-5522 / 010-9005-4167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초심자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특정 가변고압자가 용이



동간격·규격참조



원터치 연등 회전감미



고추구 128 인자구 268

SMD LED전구(국산정품)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 ▶ 고추전구, 인자전구 (정품)
- ▶ 법당용, 외곽용
- ▶ 할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 ▶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없다.
- ▶ 소켓 AC220V용으로 다용도로 사용

▶ 고추전구, 인자전구 (정품)

- ▶ 종류: 3W, 5W, 10W
- ▶ 특 할라멘트로 빛이 윤택하며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7-2